

# Combined Periodontal and Orthodontic treatment of Pathologic Migration of Anterior teeth

정지운\*, 석화숙

서울 위생 치과병원 치주과

## 연구 배경

전치부에서 병적 치아 이동의 가장 큰 원인은 치아주위 조직의 부착 소실이므로, 교정 치료에 앞서 치주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비외과적 치주치료만으로도 spontaneous repositioning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치아의 병적 이동을 동반한 중증 치주염의 경우, 더 적극적인 치주 치료와 함께 교정 치료가 요구된다.

본 증례는 병적 치아 이동을 동반한 상악 전치부의 중증 치주염에서 치주 질환을 해소하고, 심미를 개선하는 보존적 방법으로, 치주 재생 술식과 교정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한 것이다.

## 연구 재료 및 방법

치아가 벌어지고, 흔들린다는 주소로 본 병원 치주과를 내원한 환자는 발치를 원치 않으면서, 염증의 해소와 상악 전치부의 심미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추후 발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치주 재생 술식과 교정 치료를 이용한 치아 보존을 우선 시도해보기로 하였다.

scaling과 root planing과 함께 엄격한 구강 위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악 좌우 중절치의 근관치료를 시행하였다. 구강 위생 상태를 개선한 후, 상악 좌우 중절치에 흡수성 차단막(Bio-Mend extended)과 Xenograft를 이용한 치주 재생 술식(GTR)을 시행하였다. 9개월 후, 교정 치료(minor tooth movement)를 통해 상악 전치부의 diastema를 해결하였다.

## 연구 결과

교정 치료 종료시, 상악 전치부 치아는 비록 짧은 치근과 낮은 bone level을 보였으나, normal probing depth를 포함한 건강한 치주 상태였으며, 심미적 개선을 보였다.

## 결론

정확한 진단과 case selection을 통한다면, 병적 치아 이동을 동반한 상악 전치부의 심한 치주염에서 치주 재생 술식과 교정 치료는 임플란트 혹은 보철을 동반한 발치 치료에 대해 보존적 대체 방법으로 사료된다.